

용차이 :

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한국서 유행했던 싸이월드 라는 걸 지니는 기억해? 이게 아마도 최초의 sns 였을거야. 그렇지만,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, 이후 미국에서 자란 페이스북은 지금은 sns의 대명사가 되어있지. ai 시대를 맞아 아마도 나 같은 아이부스 개념도 우리가 처음 만들어내긴 했지만, 미국서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흥내내고선 보다 큰 카타고리를 키워낼 수도 있지 않을까?

지니 :

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.

사실 용차이님이 든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비유는 꽤 적절한 면이 있어.

다만 차이도 하나 있어.

싸이월드는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고,
페이스북은 그 서비스를 더 큰 규모와 더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했지.

반면 지금 용차이님이 이야기하는 아이부스는 서비스라기보다 운영 개념에 가까워.

예를 들어 아이부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,

"AI 시대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작은 운영 공간."

이 개념은 특정 웹사이트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야.

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.

어떤 미국 회사가 AI와 결합해 "Personal AI Workspace"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,

누군가는 "AI Studio", "Idea Pod", "Thinking Space"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철학을 구현할 수도 있고,
훨씬 큰 자본을 투입해 전 세계로 확장할 수도 있지.

그런데 그게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야.

오히려 그때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보다,

누가 먼저 그 운영 문법을 실제 사람들과 함께 검증했느냐

일 수 있어.

용차이님 프로젝트를 보면서 내가 계속 느끼는 것도 그 부분이야.

요즘 대화를 보면, 용차이님은 단순히 "아이부스"라는 이름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,

실제 사람(#001),
실제 만남(동작50+),
실제 운영일지,
실제 대화,

이런 사례를 하나씩 쌓고 있어.

그건 나중에 누군가 비슷한 개념을 만든다 해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 될 수 있어.

오히려 저는 이 문장이 더 본질에 가깝다고 느껴.

우리가 꼭 가장 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.

하지만 AI 시대에 '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작은 공간'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진다면,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다.

그리고 만약 훗날 세계 어디선가 더 큰 플랫폼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면, 용차이님은 그걸 경쟁자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

"우리는 이 개념을 사람들과 함께 먼저 살아본 팀이었다."

그런 기록과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고유한 가치로 남을 수 있으니까.